

무안국제공항서 라오스 정기노선 뜬다

전남도·무안군·한국항공공사·라오항공 업무협약
10월 비엔티안·12월 루앙프라방 주 2-4회 운항

무안국제공항에서 라오스를 오가는 정기노선이 오는 10월 취항한다.

전남도는 23일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와 라오스와의 협력 등을 위해 무안군, 한국항공공사, 라오스 국영 항공사인 라오항공과 국제노선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은 오는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 2-4회, 루앙프라방 노선은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 2-4회 운항한다.

편당 공급 좌석 수의 20% 이상을 도민이 항공권 검색 포털 등을 통해 직접 발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루앙프라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안국제공항에서만 직항으로 운영돼 타 공항 대비 큰 경쟁력을 갖춘 노선이다.

비엔티안은 라오스의 수도이자 500여년 역사를 간직한 최대 도시로 아름다운 불교 사원으로 유명하다.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제2의 도시로 1995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만큼 라오스 전통 양식, 수많은 불교 사원과 소수민족의 풍습 등 옛 모습이 잘 보존된 매력적 도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무안군, 한국항공공사, 라오스 라오항공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노선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지난해 7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이 개설된 노선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으로 라오스 계절노동자들의 출입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항공사 운항장려금 등 과격적 재정 지원과 무안군, 한국항공공사와 긴밀한 협

력으로 올해에만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이어 3번째로 라오항공과 국제노선 협약을 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20만명을 넘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크게 개선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올해 목표인 50만명을 달성해 무안국제공항이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우뚝 서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1976년 설립된 라오항공은 1989년부터 라오스 공공업무·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산하 국영 항공사로 운영 중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을 비롯해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총 2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전남 특성 맞는 특례 발굴 적극 건의하라”

김지사,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신속 대응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정부의 인구감소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인가받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무장 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해 이 부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규제 특례를 만들어주진 않으므로, 도민과 기업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얻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우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나, 관에서 하는 규제가 민간에 피해가 가는 것들을 살피는 등 전남에 적용이 가능

한 분야의 특례를 잘 관리해 권한을 받아내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기존에 발표한 그랜드전남 10대 프로젝트 외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 발굴해달라”며 “시·군 정책비전도 정책자문위나 전남연구원 등 전문가와 도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밀도있는 연구를 통해 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전남도 의과대학 공모 추진과 관련, 그는 “현재 추진하는 설립방식위원회의 사전설명회가 어느 도민이든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도민이 가장 원하고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姜시장, 10월 말까지 민생 경제 현장 소통 집중

소상공인·상의·경총·여성경제인 간담회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지역 경제와 민생이 참으로 어렵다.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지역의 민생경제 현장을 찾는 ‘민생경제 현장 소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금리로 인해 가게 부채, 기업 부채가 커져가고 내수 시장 축소로 지역 건설업체 등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기업이 한 번 위기를 맞아 무너지면 다시 회생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가게가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시장은 “민생을 돌보고 지역 기업들

지원하는 일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지만 지금 상황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당장 오늘 ‘소상공인 소통의 날’을 개최해 경제계와 소통하겠다. 현장에서 경청·공감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소상공인 소통의 날’을 시작으로 오는 28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 등과 함께하는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9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별, 기업 규모별로 현장을 찾고 다양한 협력기관과 전문가들도 만날 계획이다. /박성강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시 올해 첫 당정협의회

영산포 읍 전환·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나주시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나주·화순지역위원회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회는 22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렸으며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태·김호진 전남도의원,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나주시 간부, 더불어민주당 상설위원장, 부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빛가람 새책 놀이터 구축 ▲영산대교 재가설 사업 ▲나주시 자전거 거점센터 건립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광주-나주광역철도 건설 등 2025년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영산포 읍 환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과수(배)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보험 확대 ▲혁신도시 민생경제 활성화 등 관계법 개정 이 건의됐다.

신정훈 의원은 “당정이 나주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내년이면 1985년 시작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만큼 민선 8기 3년 차는 절박한 시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나주형 혁신정책 대폭 강화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시책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반영한 시책 추진 등을 강조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시민 곁에서 더 가까이 문화예술 가치를 실현합니다

문화예술은 누구나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여러분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일상 속 문화 즐기기

- 국제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9.21.(토)~22.(일) 광주비엔날레 및 금남로 일대
9.28.(토)~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 호남 최대 국제아트페어 '광주국제미술전람회 (아트·광주·24)'**
10.10.(목)~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공간 속 예술 스머지기

- 우수공연 초청기획 (사)세종술로이스츠 '바이올린 엑스트라바간자'**
8.17.(토) 17:00 빛고을시민문화관
- 에이엠(A.M)예술기획 '비르투오소들의 조우(遭遇)'**
8.31.(토) 17:00 빛고을시민문화관
- 극단수파파리 '통속소설이 머 어때서?'**
9.4.(수) 19:30 빛고을시민문화관
- 전통무용문화체험 '희희낙락 회경루'**
9.14.(토) 15:00~18:00 회경루 풍류기행(전통체험·탈방, 공연)
- 9.21.(토) 15:00~18:00
- 9.28.(토) 15:00~18:00
- 10.12.(토) 15:00~18:00
- 회경루 야행(夜行)**
10.5.(토) 17:00~20:00 전통체험부스 및 전통공연

광주문화재단 www.gjcf.or.kr www.facebook.com/gjcfcf 광주문화재단TV blog.naver.com/gjcfcf 광주문화재단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7 | TEL.062-670-7400 | FAX.062-670-7489